

## 신국제노동분업의 재평가

고태경

인디애나 주립대학 지리학과 객원교수

### 1. 신국제노동분업과 자본의 국제화

제 1 차 세계대전까지 지배적이었던 국제노동분업의 첫번째 형태는 핵심자본주의 산업국가들의 시장침투로 인하여 그들 국가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의 출구로써, 그리고 또한 자본투자를 위한 출구로써 출현하였다(주로 남미의 여러 국가들의 대상). 이같은 '舊' 국제노동분업은 선진국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과 저개발국가들의 저임금 노동력과 원료를 교환하는 성격을 가졌었다. 그러다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위기(즉, 저소비로 인한 위기)를 내부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 - 즉, 프랑스 조절이론가들에 따르면, 당시 자본재 생산이라는 '외연적 축적체제'에 조응하는 '조절양식'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경험하다가 제 2 차세계대전이후 포드주의적 독점 조절양식의 출현으로 그들의 내부 경제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舊' 국제노동분업 형태의 중요성이 점차로 약화되어 갔다. 선진국에서 포드주의의 발전이 절정에 달하였던 1960년대 중반에(소위 High-Fordism시기), 저개발국가들로의 제조산업 수출비율은 최소화 되었다. 1935년 당시 선진제국에서부터 저개발국으로의 제조산업수출이 56.8%를 차지하였다가 1970년에는 20.3%로 하락하였다(표1 참조).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프랑스의 경우 저개발국가들로의 제조산업수출이 1913년 26%였다가 1959년에 18%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40%에서 23%로, 그리고 영국은 45%에서 19%로 각각 하락하였다(Noel 1987, p.328 주85 참조). 그리고 저개발국의 선진국들로부터의 제조상품수입 역시 1970년에 GDP의 0.2%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선진국들간의 무역은 급속히 증가하였다(수출의 경우 1935년 29.5%에서 1970년 74.3%로 증가-표 1참조)(Lipietz, 1986 : Noel, 1987).

표 1. 제조업 교역의 구성비(%)

년도	수 출				수 입			
	선진국		저개발국		선진국		저개발국	
	within	outside	within	outside	within	outside	within	outside
1935	29.5	56.8	9.1	4.5	30.4	4.3	8.7	56.5
1970	74.3	20.3	2.0	3.4	71.9	6.5	2.0	19.6
1979	67.1	22.4	3.9	6.6	NA	NA	NA	NA
1983	64.1	22.6	4.6	8.8	NA	NA	NA	NA

자료 : Gordon, 1988, 재인용

그러다가 1960년대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 여러국가들은 포디즘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포디즘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생산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값싼 임금지대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또다시 국제노동분업의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Lipietz, 1982).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들의 각 국가적 경제위기가 아닌 국제적 경

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新국제적 노동분업’이다. ‘新국제적 노동분업’(이하 NIDL :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이 출현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가지의 다른 논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과 생산을 위한 세계적 시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한 ‘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Frobel, et al, 1980); 둘째는, 선진제국에서의 이윤을 저하로 인하여 저임금 지대와 노동자 세력이 약한 지역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들 수 있다(Arrighi, 1978; Frank, 1980; Frobel, 1982, 1983; Landsberg, 1979). 전자는 NIDL의 배경을 노동력과 생산기지를 위한 세계시장의 중요성에 두고 있고, 후자는 이윤을 하락과 경제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의 조절이론가들에 따르면 포드식 생산과정의 분리가 생산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켜 주었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구상과 개념, 조직방법, 그리고 기술중심의 중추과정; 숙련노동을 요구하는 제조과정; 그리고 비숙련의 조립과정으로 생산과정이 분리되면서 이것이 지리적 분리를 촉진시켜 주었다고 보고 있다. 산업생산과정에서의 이와같은 분리는 ‘중양 포디즘’의 생산규모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넓힘으로써 포디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면서 NIDL의 후자의 논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혈적 테일러화’(Lipietz, 1987), ‘주변부 포디즘’(Lipietz, 1982), 그리고 주변부 내에서의 새로운 핵심-주변 관계<sup>1)</sup>(즉, 주변국가들 내부에서 무역이 증진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 Donaghu & Barff, 1990; Kim, 1993) 등이 강조되면서, 주변부에서 NICs(신흥공업국 :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가 출현함에 따라 과거 종속이론가들의 입지가 약화되었

고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NIDL과 또한 ‘생산의 국제화’(이하 GOP : Globalization of Production) 이론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과거의 ‘舊’ 국제노동분업 형태는 주변국이 핵심지역에서 생산된 제조상품과 교환하기 위하여 농산물과 원료를 제공해주는 광범위한 부문적, 그리고 수평적인 노동분업이었던 반면, NIDL은 국제경제에서 여러 기능들의 공간적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NIDL은 앞서 언급한 포디즘의 발달로 인한 생산과정의 분리와 그에 따른 지리적 분리로 인하여, 핵심지역은 고도수준의 지식과 기술- 집약적인 활동에, 그리고 저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생산과정들은 주변지역으로 분산됨에 따라서, 표준화된 생산과정이 저개발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NIDL은 세계적 규모에서 저렴한 임금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본의 국제화는 노동력이 풍부한 생산기지과 산업예비군이 산재해 있는 지역을 요구하게 되었다. 반면, 생산의 국제화 모델인 GOP의 관점은 NIDL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위 북부(선진국)에서부터 남부(저개발국)로의 생산의 이동보다는 다음의 두가지 관련된 관점에서 자본의 집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분산화된 생산기지의 확산과, 그리고 둘째는, 이와같이 분산화된 생산단위들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중앙적 통제와 통합을 들고 있다. GOP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고취시킴으로서 자본의 집적이나 집중에 중점을 두고 있다.

NIDL이론가들은 ‘교역’을 중요시하고 있는 관계로 선진국 자체내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변화의 역할을 경시함에 따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NICs의 점차적인 발달과 ASEAN의 급격한 성장으로 선진국가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켰고, 이같은 기술발달로 인하여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함에 따라 저개발국들의 비교우위인 저임금 노동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은 주변국에서부터 선진국가 내부로, 즉 선진국내에서 저임금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주변지역(이를테면, 소도시, 대도시 주변지역, 혹은 농촌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면서, NICs와 ASEAN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1980년대 소위 '포스트 포드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주변국들내에서의 가격경쟁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겠다. 예를들면, 반도체산업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수입에서 아시아의 NICs가 1969년 까지 96.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1983년 36.3%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특히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두 국가가 57.7%라는 비율을 보임으로써 급상승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동안 아시아 NICs에서 노동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과 같은 소위 準NICs에서의 임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국가내에서의 이같은 임금격차는 NICs에 집중되었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임금이 보다 낮은 準NICs로 이동함에 따라 NICs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시킴으로써 주변국가내에 또다른 핵심-주변관계가 형성되었다(예, 나이키 신발업의 경우, 한국이나, 대만은 인도네시아나 중국에 있는 공장들과 하청관계를 맺는 joint venture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구체적 설명은 Donaghu & Barff 1990 참조). 그외에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

역지대(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권(APEC) 등과 같은 지역 추도의 불확화 현상이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변화로 등장하였다. 이같은 신국제질서에서 NIDL과 GOP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타와 같이 과연 NICs를 비롯한 저개발국들이 국제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과연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NICs를 포함한 저개발국들의 위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 2. 세계경제에서의 NICs의 역할 변화

많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특히 신흥공업들이 최근 산업생산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1966년과 1984년 사이에 NICs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세계 전체산업생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12.2%에서 13.9%로 증가하였고, 제조생산에서 NICs는 같은 기간 5.7%에서 대략 8.5%로 증가하였다(Gordon, 1988).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NIDL과 GOP이론이 예측한 타와 같이 개도국들이 세계경제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냐는 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표 2를 참조하여 보면, 우선 시대적 분류는 장기파동에 입각한 것으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분류는 실제 GNP와 '잠재적'인 GNP와의 비율에 따라 비지니스 사이클에서 1948년, 1951년, 1955년, 1959년, 1966년, 1973년, 1979년, 그리고 1984년으로 정점시기를 구분하였다(Bowles, et al., 1983). 일반적으로 장기파동 이론가들과 조절론자들은 1948년에서 1966년까지 상당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1948-66 기간을 경제성장단계, 1966년에서 1973년 그리고 1973년에서 1979년까지를 경제퇴락단계

로, 그리고 그 이후의 1979년에서 1984년까지를 경제회복단계로 보고있다(Bowles, et al., 1983 ; Sherman, 1986). 본 연구에서는 1948-66, 1966-73, 1973-79, 그

리고 비즈니스 사이클을 분류하였다(이 사이클의 구체적 설명을 위해서는 Bowles, et al. 1983, Chapter 2 참조)

표 2. 산업생산의 세계적 분포(단위 : 비율)

국 가	1870	1896 ~1900	1913	1926 ~1929	1938	1948	1966	1973	1979	1984
영국	32.0	20.0	14.0	9.0	10.2	6.7	4.8	3.8	3.4	3.0
EEC(1)					27.5	15.4	18.8	17.2	15.5	14.1
미국	23.0	3.0	36.0	42.0	28.1	44.4	35.2	29.5	28.3	28.4
일본		1.0	1.0	3.0	5.7	1.6	5.3	7.8	7.4	8.2
기타선진국(2)	15.0	17.0	2.0	19.0	10.9	9.4	7.1	8.2	7.3	7.3
CPE(3)					7.2	8.4	16.7	19.5	23.5	25.4
LDCs(4)	3.0	3.0	4.0	3.0	10.4	14.0	12.2	14.0	14.6	13.9
유럽NICs(5)					2.9	1.9	2.1	2.8	3.0	2.9
남미NICs(6)					1.3	2.9	3.2	3.6	4.2	4.3
아시아NICs(7)					0.2	0.1	0.4	0.7	1.3	1.3
기타아시아					2.7	2.5	3.1	2.8	3.1	2.9
기타 LDCs					2.5	5.3	2.9	1.7	1.7	1.8

(1) EEC는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등을 포함.

(2) DCs(developed countries)는 선진국을 가리킴.

(3) CPE(Centrally Planned Economies)는 구사회주의국가들을 지칭.

(4) LDCs(Less Developed Countries)는 저개발국가들을 통칭.

(5)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를 포함.

(6)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

(7)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

자료 : Gordon, 1988 재인용 ; United Nations,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various years.

표2에서 보여주듯이, 전체 산업생산에 대한 NICs의 몫은 1966년과 1984년 사이에 2.8% 증가하였다. 영국은 1886-1900에서부터 1913년까지의 대략 15년 동안 산업생산에서 6%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1966년과 1984년 사이에는 1.8%만을 손실하였다. 미국의 경우 1966-84년 사이에 6.8%로, 그리고 EEC는 같은 기간 4.7%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1966-84년 동안 11.6%라는 산업생산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1966-84년 동안 NICs에서의 산업생산 증가는 선

진국에서의 산업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고, 일본과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때 NIDL이론가들이 예측한 것과는 달리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표 2의 자료에 입각한 표 3은 세계산업생산에서 선진국가가 차지하였던 몫이 1966년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일본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산업은 1966년 이후 계속해서 성장하였으며, NICs를 포함한 저개발국가들에서는 1966년 이후 성장하다가 1984년에 성장에서의 감소를 나타내주고

있다<sup>2)</sup>. 표3에서는 세계경제에서의 두가지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는, 자본축적의 팽창시기였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까지 선진국이 세계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1870년에 전체의 93%를 그리고 1926-29년에는 89%를 차지). 그리고 둘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 산업생산에서 급격히 쇠퇴한 이유는 저개발국들이 상대적으로 팽창하였기 때문이라는 NIDL/GOP 모델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성장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48년에 LDCs(저개발국: Less Developed Countries)가 세계산업생산에서 차지한 비율은 14%였다가 1984년에는 13.9%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본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같은기간 10%에서부터 33.6%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후자 국가들에서의 팽창이 세계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본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표 3. 세계 산업생산 구성

년 도	선진국 (1)	일본과 CPEs	저개발국
1870	93.0	4.0	3.0
1896-1900	91.0	6.0	3.0
1913	91.0	5.0	4.0
1926-1929	89.0	7.0	3.0
1938	76.7	12.9	10.4
1948	76.0	10.0	14.0
1966	65.8	22.0	12.2
1973	58.7	27.3	14.0
1979	54.5	30.9	14.6
1984	52.8	33.6	13.9

(1) 일본은 제외

자료: 표2의 자료에 입각하여 산출,  
Gordon, 1988, 재인용.

세계수출구조에서 LDCs의 역할을 살펴  
보더라도 1950년 31.1%를 차지하였다가

1987년 20.3%로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DCs는 가온 기간 60.8%에서 69.5%로 증가추세를 나타내 주고 있다(Liodakis, 1990, p.202).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CPEC을 포함한 LDCs는 세계수출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의 증가를 보여주었는데(18.4%에서 28.6%로), 이것은 1973-1980년동안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한 급격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LDCs내에서 CPEC과 non-CPEC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LDCs 내부의 무역구조에서 급격한 분열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LDCs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일반화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다. 경기회복기라 할 수 있는 1980년 이후에는 세계수출무역에서 LDCs의 역할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1980년과 비교하여 1987년에는 29%가 감소한 20.3%를 차지). 반면, 일본과 몇몇 구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DCs(선진국들: Developed Countries)는 1980년 62.5%에서 1987년 69.5%로 세계수출에서 꾸준한 증가를 경험하였다(Liodakis, 1990, p.202).

표4(a)는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NDCs와 NICs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NICs를 포함하지 않은 LDCs에서의 산업생산의 몫은 1948년에서 1966년 사이에 9.1%에서 6.3%로 하락하였고, 그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다. 반면, NICs의 몫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완만하게 성장을 해오다가 1979-84년 비저니스 사이클 동안 감소를 보여주었다(8.5%에서 8.4%로 감소). 표4(b)는 NICs와 LDCs에서의 각 비저니스 사이클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설명해 주고 있다. LDCs의 산업생산은 1948년에서 1973년까지 빠르게 성장을 해오다가 1973년에 급격히 감소하였고, 1973-79년 동안에는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그리고 1979-84 사이클 동안에는 연평균 0.9%라는 매우 둔화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NICs의 경우를 보면, 1948-66 사이클 동안, 즉, 전쟁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해오다가(14.4%), 1966-73 동안에는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1973-79년 동안 7.8%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그리고 1979-84 기간 동안에는 1.8%라는 매우 느린 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같이, NICs는 산업생산 성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표 4a. 저개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share

년 도	전체LDCs		NICs		기타NDCs	
	share	ann.%*	share	ann.%	share	ann.%
1938	10.4	NA	4.4	NA	6.0	NA
1948	14.0	+3.5	4.9	+11	9.1	+5.2
1966	12.2	-0.7	5.9	+1.1	6.3	-1.7
1973	14.0	+2.1	7.1	+2.9	6.9	+1.4
1979	14.6	+0.7	8.5	+3.3	6.1	-1.9
1984	13.9	-1.0	8.4	-0.2	5.5	-2.0

\*ann.% (average annual percent growth rates)는 연평균성장률.

자료: 표2의 자료에 의거 분석, Gordon, 1988, 재인용

표 4b. 저개발국가들의 산업생산성장률

기 간	전체LDCs	NICs
	ann.%*	ann.%
1948-1966	9.4	14.4
1966-1973	10.7	13.0
1973-1979	4.5	7.8
1979-1984	0.9	1.8

\*ann.%는 연평균성장률.

자료: 표2의 자료에 의거 분석, Gordon, 1988, 재인용

표 2, 표 3, 그리고 표 4a, b를 통해서 NIDL과 GOP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논의들과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첫째는, 1970년대 이후 LDCs와 NICs로 산업

생산이 이동하고 있다는 논의는 본 자료가 제시해주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최근의 이동은 1930년대의 세계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에 LDCs가 받았던 이익과 그리고 194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중반 사이에 LDCs가 받았던 이익과 그리고 194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중반 사이에 LDCs가 차지하였던 비중과 비교해 볼 때 그 중요성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NIDL과 GOP 모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970년대 초기 이후 NICs를 향하여 산업생산의 가속화된 상대적 이동이 있었다는 논의는 본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표 4(b)가 보여주듯이, NICs의 산업생산에서의 실제성장은 1966년 이후 상당히 둔화되었다(1948년-66년 동안 연평균 산업생산 성장률이 14.4%에서 1979-84 동안에는 1.8%로 급격히 감소).

NIDL이론가들은 북부와 남부간에 점차로 세분화된 노동분업과 더불어, 산업생산구조에서 세계적인 이동이 있어왔다고 논의하고 있다. 즉 LDCs의 산업생산구조는 DCs와는 상반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DCs에서 비교우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던 산업들(주로 노동·기술집약적 산업들)이 산업생산과 고용을 LDCs로 이동하면서, LDCs에는 급격한 성장률, 그리고 반면에 DCs에는 제조산업의 쇠퇴와 같은 탈산업화와 그로 인하여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와 제조산업의 성장침체를 NIDL로 인한 탈산업화와 산업생산기지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제조산업 성장에서의 침체는 외국으로부터의 가격경쟁이나 소비상품에서 수입품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미국내 수요의 느린 성장 때문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포디즘이 가장 발달하였던 196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장, 특히 내구소비재시장(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내구소비재의 소비수준 저하와 그리고 대량생산의 포드식의 축적체제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였다. 포디즘을 채택한 산업체들에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과잉생산된 내구소비재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외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경쟁으로 생산비용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LDCs와 NICs로 생산활동을 이전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물의 대부분은 선진국으로 재수입되기 보다는 현지 생산된 국가들 내에서 판매됨에 따라 소비시장이 LDCs로 확장되었다. 1970년대 후반 북미, EEC, 그리고 일본 등에서의 전체 제조상품에 대한 소비 가운데 저개발국들로부터 수입된 제조상품이 차지한 비율이 2% 미만을 보여주었듯이(Jenkins, 1984, p.43), 제3세계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은 선진국으로의 수출보다는 저개발국들의 시장에 침투되었다. 결국 선진국의 제조업에서의 성장둔화는 LDCs와 NICs에의 투자에 대한 결과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포디즘의 지나친 발달과 선진국 자체내 소비시장의 포화가 그 원인적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NICs의 성장은 주로 자본집약적 산업들(예, 제철, 조선, 화학, 자동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같은 산업의 발달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자본과 하부구조에 대한 국가의 막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NICs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은 공장설비의 빠른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그리고 노동생산성에서 급격한 성장을 일으켜 주었다. 브라질

과 멕시코 같은 경우 주요산업들은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국가가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발달에서 주요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를테면, "국가자본주의"가 발달, Benjamin & Duvall, 1985). 이같은 사실은 NIDL과 GOP모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주로 저임금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NICs에서의 경제성장을 설명해 준다는 논의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조절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변부 포디즘'의 개념이 NICs에서의 성장을 설명하는데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Lipietz, 1982, 1986).

또한 NIDL이론에 따르면, 저개발국에서 낮은 노동단가로 인하여 이 지역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낮은 노동단가 보다는 생산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체들의 브라질과 멕시코, 그리고 유럽지역에의 투자를 비교한 결과, 남미국가들의 임금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단가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Jenkins, 1984). 저개발국들로의 투자는 낮은 임금보다는 높은 생산성이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 3. 신국제노동분업의 재평가 : 선진국에서 생산재조직과 개도국에서 시장의 중요성

1970년에서 1984년 사이에, 특히 미국 제조업의 외국에의 투자를 살펴보면, 3억 1천만달러에서 8억6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은 미국 경제에서 위기가 심화된 시기였고 또한 국제경쟁이 심화된 시기였다. 1970년에서 1984년의 14년동안 이같은 증가는 지리적 분배의 측면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저개발국에 대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17.6%에서 22%로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3/4이 단지 6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NICs들(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유고슬라비아)에의 투자는 같은 기간 2.6%에서 4.4%로 증가하였다(Schoenberger, 1988). 선진국에 대한 미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1970년 79.7%에서 1984년 72.5%로 감소하였으나, 1986년까지 76.2%로 증가한 반면, 저개발국들은 1984년 22%에서 1986년 18.8%로 그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과 같이 미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 대상으로써 선진국은 아직까지 지배적인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수있다(Schoenberger, 1988, p.110). 다국적 기업을 통한 외국 제조업에의 투자의 상당 부분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저개발국에 입지하고 생산조직을 분산화 시킨다는 NIDL/GOP모델의 이론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비교적 생산비용이 높은 주요 선진 외국 시장을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NIDL/GOP 모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개발국 중심의 국제적 생산전략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NIDL모델에서 이유가 기술변화에 대한 고려는 주로 생산물의 표준화, 생산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노동의 비숙련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산의 분산화는 기술발달(이를테면, 통신과 교통에서의 발달)에 의해 가능하게 되지만, 대개는 경쟁에 직면하여 노동비용과 노동통제 문제에 반응한 것이다.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이윤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국가로 분산되기 보다는 핵심지역내에서 생산을 계속해서 재조직함으로써(예, 자동화 추진 등) 이윤율을 최대화시키는 가능성을 NIDL모델에서는 경시하고 있다. 기업

체들은 또한 핵심국가내에서 다양화된 지역적 전략을 통하여 상당한 비용감소를 성취할 수 있다(예를 들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경우, Kanban, 혹은 "just in time"인 적재적소 방식, 즉 관련 중·소규모 산업체들의 공간적 집합을 통해 자동차부품을 신속하게 공급, 조달하는 효율적이고 유연성있는 체계; 미국의 경우 실리콘 벨리와 같은 집적 경제의 출현; 대도시에서 부터 중, 소규모 도시로 투자의 전환; 한가지 주요 산업위주의 성장보다는 지역경제의 다변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NIDL모델은 생산요소 공급시장을 위한 국제적 생산기지를 이해하는데 주요 요인으로서, 특히 노동력에 초점을 두면서, 생산요소비용과 공급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LDCs로의 직접적인 투자는 상당 부분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보다는 개도국의 시장에서의 접근성에서 얻어지는 이득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같은 남미의 NICs 경우). 예를 들면, 1976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입지한 미국 다국적 기업의 지부에 의한 판매의 79%가 그 지역 시장이었고, 남미의 경우 94%에 이르렀다. 1984년 다국적 기업을 통하여 미국 본국으로의 제조업의 재수입(소위 repatriation of production)은 25.6%에 불과하였다. LDCs의 발전은 그들 시장잠재성을 높이게 되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가 계속해서 팽창하게 된다. DCs의 시장침체와 그리고 둔화되고 있는 성장률과 결합하여, 다국적 기업의 LDCs로의 이동은 노동지향적이기 보다는 시장지향적으로 지속될 것이다(Schoenberger, 1989, p. 113). 이것은 NIDL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부에 의해서 현지 생산된 생산물이 선진국으로 다시 재수입되는 국제교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가에서 특히 제조산업에서의 고용위기는 ME 혁명을 통한 산업구조변화나 혹은 생산에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서, 외적인 요인(즉, 가격경쟁, 국제경쟁)에 의해서 보다는, 총 수요에서의 성장문제의 잉여자본의 이윤성있는 투자를 위한 출구의 부족과 결합하여, 내적으로 발생(시장침체나 자동화 등)하였다는 것을 NIDL모델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4. 실험 : 반도체 산업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반도체산업을 연구한 스카트(1987)는 NIDL 모델에 입각하여 반도체산업에서 생산과정에서의 분리가 지역적 분리를 가능케 해주었다고 논의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에서의 생산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 :

- (a) R & D(research & development), 기술 - 과학적 방법을 필요로 하는 첨단 디자인과 mask-making과정 :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입지.
- (b) 'wafer fabrication', 실리콘 wafer에 전자회로를 에칭하는 작업으로 자본집약적 과정 : 숙련기술자와 반숙련기술자를 포함, 주로 선진국에 입지하는 경향 : 미국, 영국.
- (c) 조립과정, 즉, wafer를 각 칩으로 분리, 전선에 연결, 그리고 테스트과정 : 주로 노동집약적 생산과정, 저개발국의 값싼 노동지역에 입지 :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반도체 조립라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UN. N. CTC, 1986, P.88-101 참조).

특히 반도체산업이 동남아시아에 갖고 있는 매력은 물론 잉여노동과 저임금 수준에 있다(1985년 시간당 노동임금을 미국 100달러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동남아시아 지역국가들, 즉, 홍콩,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타일랜드에서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1

불50센트에 불과 - Scott, 1987, p.145). 또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직접적인 간섭으로 투자를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지나친 국가간섭은 상당히 호의적인 사업분위기(예, 노동통제)를 조성해주며, 생산비용과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보조(예,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근로자들의 주택제공 등)해 준다. 스카트는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의 커다란 잠재성, 숙련기술자들의 증가, 저임노동력의 산재, 그리고 국가의 협조 등으로 이 지역에서의 반도체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써 스카트는 동남아시아 8개국에 입지해 있는 미국 소유의 반도체조립산업이 1964년에 두개에 불과하였다가 1974년에 44개로, 그리고 1985년에는 65개 업체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Scott, 1987, p. 145)

셰이어(1986)는, 그러나, 저임노동력으로 동남아시아와 같은 저개발국들에 특히 반도체 산업이 입지하게 된다는 논의에 반박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입지를 가격경쟁의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생산혁신이나 기술적 보완성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제도적 특징을 경시하고, 불균등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위하여 저임금노동력이 풍부한 저개발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위에서 스카트가 분리한 (a)의 생산과정에 입각하고 있는 실리콘 밸리와 같은 지역에 저임금의 여성들과 이주민들로 구성된 저숙련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산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조립생산들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집중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셰이어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술발달, 노동조직 변화, 극동지역에서의 정치

적 불안정성,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조립과정과 wafer fabrication을 한 지역에 같이 입지시키는 경향 등으로, 여러 반도체 산업들은 NICs나 LDCs 보다는 선진국에 오히려 더욱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면, 모토롤라의 경우 화물요금 증가, 조립에서의 자동화, 그리고 관세장벽들로 인하여 조립공장들이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8년에 세계 반도체 생산의 53.3%를 차지하였다가 1983년에는 62.3%로 증가하였고, 유럽의 경우는 1978년 12.3%에서 1983년 7.9%로 감소하였으나, 일본은 1978년 21.7%에서 1983년 27.8%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저개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8년 12.8%에서 1983년 2%로 급격히 감소한 것과 같이, 이는 세이어의 위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Sayer, 1986, p. 111).

반도체 산업생산의 지리학 역시 NIDL 모델이나 다국적 기업들의 일반적인 입지적 전략과 들어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생산과정에서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노동집약적 생산의 의미가 점차로 약화되고 있고; 저렴한 임금노동이 산재해 있는 저개발국들로의 입지에 反한 대안채들이 등장하고 있으며(즉, 선진국내에서의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spatial fix'를 추구); 이와 관련하여 생산과정과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평균 기술수준의 요구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서의 접근성, 특히 전문가들이나 관련 산업체들에의 접근성의 필요성으로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이 계속되고 있고(예를 들면, JIT나 기업들간에 기술적, 공간적 네트워크형성; 그리고 지역화 현상(즉, NAFTA, EC, APEC 등)으로 관세나 다른 여러 장벽들의 제거, 또한 국제화의 지리적 패턴으로 국가들에 의해 놓여지는 여러가지 혜택들로 인하여

LDCs보다는 DCs나 그들 인접국가들로 투자의 향방이 변화되고 있다.

위와같은 논의는 신국제노동분업 이론을 대표하고 있는 프리벨 et al.(1980)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프리벨 et al은 국제노동분업의 재조직에 영향을 주는 세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 (a) 잠재력있는 노동력의 발달은 [저임금, 오랜 작업시간, 높은 착취율의 기회 등]...자본축적 과정에서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p. 34)
- (b) 기술발달과 작업조직은 복잡한 생산과정을, 비숙련노동자들도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단시간내에 훈련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초적인 작업단위로 해체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p. 35)
- (c) 기술에서의 발전은 대개 지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산업입지와 생산의 경영을 가능케 해준다(p. 36)

위의 세가지 조건들은 어느 특정 시기에, 어느 특정 산업의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 첫째, 잠재적인 노동력의 존재는 더 이상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체들은 자동화를 추진하게 되고, 극소전자는 몇몇 주요 생산기술 가격을 저하시키게 됨에 따라, 선진국에의 입지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발달이나 작업조직에서의 재구조는 저숙련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분리되었던 활동들을 재결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특정 기술발달은, 특히 주문생산품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지리적 근접성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공간효과' 혹은 '거리마찰'의 감소가 여러 활동들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자본가들간의 경쟁이 공간적 접근을

점차로 필연적인 여건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생산조직에서 다른 방법의 도입(예, 일본의 Kanban)이나 더욱 유연한 제조체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생산과정에서의 자동화는 반도체 산업과 같이 발달된 산업들을 저개발지역을 생산입지를 분산시키기 보다는 선진국의 특정 지역에 집합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예를 들면, 실리콘벨리, M4 Corridor 등). 저임금의 저개발지역으로의 생산의 분산화는 더이상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되어주지 못한다. 선진국에의 지리적 재입지와 새로운 산업지역의 형성은 '포스트 포드주의'사회에서 공간적 특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포드주의의 대량생산위주의 규모경제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취향의 다변화와 고객-주문 위주의 범위경제를 중시하고 있는 포스트 포드주의는 과거 오랜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보다는 새로운 '사회적-기술적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역에 산업공간을 형성함으로써 1990년대의 지리학의 새로운 장을 전개시키고 있다(소위 '유연적 생산 복합체' 혹은 새로운 산업공간'형성; Storper & Scott 1989 참조).

## 5. 맺음말

지금까지 여러 자료들과 논의를 통하여 NIDL/GOP 모델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본의 국제화 논리를 재검토하여 보았다. 더많은 자료로 위의 논의를 검증해 봐야 하겠지만, 본 자료에 의거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NIDL/GOP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개발국들이 세계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저임금과 같은 생산요소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LDCs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기 보다는 선진국 자체내의 기술발달로 오히려

DCs에의 투자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LDCs와 NICs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단순히 생산비용에서의 감소를 위한 전략에 근거를 둔 것이라기 보다는 이들 국가들에서의 시장 잠재성이 보다 중요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LDCs 국가들의 강한 간섭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여러가지 혜택(노동통제, 임금억제, 세금감면 등)을 받고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LDCs 자체의 내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항상 유동성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들의 투자가 얼마만큼 저개발국들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지는 또 다른 이슈이며, 여러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 주

- 1) 특히 아시아 국가들간에 자본, 노동, 상품 등의 교역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1986-1989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의 수출이 23%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아시아 전체수출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내부에서의 이같은 수출 교역의 70%가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Kim(1993)의 Table 1을 참조바람.
- 2)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1950년대까지 '외연적 축적체제' (extensive accumulation)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재부문에서의 생산성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실질소득과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혁신과 생산성이 따르지 못한 관계로 '내포적 축적체제'(intensive accumulation)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Noel, 1987, p. 329).

## 참고문헌

- Arrighi, G., 1978 "Towards a theory of capitalist crisis", *New Left Review*, No. 111, Sep.-Oct.
- Benjamin, R. & Duvall, R., 1985, "The capitalist state in context", in R. Benjamin & S. Elkin (eds.). *The Democratic State*. University

Press of Kansas.

Bowles, S., Gordon, D., Weisskopf, T., 1983, *Beyond the Waste Land: A Democratic Alternative to Economic Decline*, New York: Anchor Press.

Donaghu, M. & R. Barff, 1990, "Nike Just did it: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and flexibility in athletic footwear production," *Regional Studies*, Vol. 24, pp. 537-552.

Frank, A., 1980, *Crisis in the World Economy*.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Frobel, F. 1982,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world-economy: Reproduction of labor and accumulation of capital on a world scale", *Review*, Vol. 4, Spring.

\_\_\_\_\_, 1983, *Economic Policy in the Crisis: Some Observ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paper presented to the Seminar on Internation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Periphery, Oaxtepec, Mexico.

Frobel, F., Heinrichs, J., Kreye, O., 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rdon, D., 1988, "The global economy: New edifices crumbling foundations?", *New Left Review*, No. 168, pp. 24-64.

Jenkins, R., 1984, "Divisions over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Capital & Class*, Vol. 22, pp. 28-57

Kim, W. B., 1993,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regional adjustment in Asian N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5, pp. 27-46.

Landsberg, M., 1979,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Third World: Manufacturing imperi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1;4.

Liodakis, G., 1990,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uneven development: A review of the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2(2-3), pp. 189-213.

Lipietz, A., 1982, "Towards Global Fordism?", *New Left Review*, NO. 132, pp. 33-47.

\_\_\_\_\_, 1986, "New tendencies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regimes of accumulation and modes of regulation", in *Production, Work, Territory*, edited by A. Scott and M. Storper, Boston: Allen & Unwin.

\_\_\_\_\_, 1986, *Mirages and Miracles*, London: verso.

Noel, A., 1987, "Accumulation, regulation, and social change: An essay on French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2, Spring, pp. 303-33.

Sayer, A., 1986, "Industrial location on a world scale: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Production, Work, Territory*, edited by A. Scott and M. Storper, Boston: Allen & Unwin.

Schoenberger, E., 1988,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 Critical Appraisal",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 11, No.2, pp. 105-119.

Scott, A., 1987,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south-east Asia: Organization, location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Regional Studies*, Vol. 21, No. 2 pp. 143-160.

Sherman, H., 1986,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 U. S. business cycle," *Review of Radical Politics; Economics*, Vol.18(1 & 2), pp. 190-204.

Storper, M. & Scott, A., 1989, "The geographical foundations and social regulation of flexible production complexes," in *the Power of Geography: How Territory Shapes Social Life*, edited by J. Wolch and M. Dear, Unwin Hyman. U.N. Centre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CTC), 1986, "Transnational Corporation in the International Semiconductor Industry," pp. 88-101.

## ABSTRACT

###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Re-evaluation

Taekyung Koh  
Visiting Scholar, Indiana University

As an exit to solve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ol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developed. The economic crisis (i. e., under-consumption crisis) was due to the absence of the mode of regulation compatible with the 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 (i. e., "Fordist" regime). The crisis was solved by the state intervention through the creation on institu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consumption. Until the late 1960s when "high Fordism" reached (i. e., a harmonious relation between the monopoly

mode of regulation and the intensive accumulation of capital), the developed core countries enjoyed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e external market was not a necessity for the economic growth because there were increases in labor productivity and proportional increases in real wages and thus increases in consumption level. In the 1970s, however, the core faced with economic crisis again.

Due to the breakdown of the postwar "Fordist" regime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post 1973 world depression, the core needed the Third World as a solution for their inter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Thus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NIDL) arose. The "Fordist" method of production(i. e., the divisions of production process) led to the territorial division of labor and to the detailed division of labor.

The aim of the NIDL is to exploit reserve armies of labor on a world scale and thus to reduce production costs. According to the NIDL model, the Third World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by the core countries' investments on mainly labor-intensive industries and thus have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NIDL theorists argue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increasingly invested in the Third World nations and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ose regions.

Tables presented in the paper show that the global trend since the 1970s does not follow the argument exactly as the NIDL theorists predicted. On the contrary, the core countries focus on developing technology, adopting the automation of production process, and trading within the core countries rather than on investing in the peripheral countries. The continuing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to the periphery is not because of cheap labor force but because of the market potentials in the regions. Majority of corporations of the core tries to reduce production costs by investing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more intensively and also by changing regional strategies(i. e., investment from metropolitan areas to medium- or small-size cities, focusing on agglomeration economy, boosting regional diversification, etc.) within their own countrie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and to criticize the NIDL theory based on some empirical data.